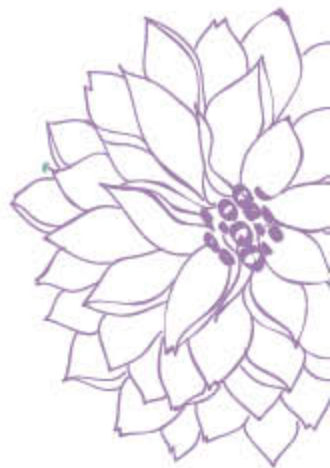




심화 앤 피플

05월·06월
2013 vol.5



S E N S I B I L I T Y

봄을 뒤로하고 어느덧 찾아온 여름의 시작.
감성 매신저 '심화앤피플'에서 두근두근
설렘 가득한 감성이야기를 지금 전합니다.

마포염리동소금길

CONTENTS

THE STORY

- 02 테마스토리
감동의 스포츠, 우리의 감성을 흔들다
- 04 공감스토리
아름다운 범죄예방 '셉테드(CPTED)'
- 06 파플스토리
삼화를 만드는 사람들 - 광주광역시 두하도장상사 백대선 대표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 제관팀

THE COLOR

- 08 컬러트렌드
손끝에 컬러예술을 만나다. '2013 S/S NAILS COLOUR TRENDS'
- 10 페인트레시피
페인트, 보다 능숙하게 칠 하기

THE FOCUS

- 11 마켓인사이드
삼화페인트가 전하는 또 한번의 놀라움!
3시간용 "무용제형 에폭시 내화도로" 개발
- 12 현장르포
삼화페인트 대전영업소 직원들과 함께한
제13회 대청호마라톤대회를 돌아보다
- 14 라이벌열전
페인트업계의 양대산맥 '삼화페인트 vs KCC'
- 15 뉴스포커스
- 16 자동조색기 완전정복
한눈에 알아보는 자동조색기 주문배합 데이터 활용법

THE COMMUNITY

- 17 문화를 드립니다.
Samhwa&Quiz /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삼화페인트와 함께하는 마포염리동소금길 조성작업

Sensibility

감성으로 물들이다

감성은 언제나 세상에 있으며 우리 내 가슴속에 가득합니다.
 다만 우리가 잊고 지내고 있을 뿐.
 바쁘다는 핑계로, 여유가 없다는 변명으로 덮어두었던
 마음이라는 뚜껑을 스스로 여는 순간,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내면 길이 숨어있던
 당신의 감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봄을 뒤로하고 어느덧 찾아온 여름의 시작.
 감성 메신저 '삼화인디폴'에서 두근두근 설렘 가득한
 감성이야기를 지금 전합니다.

감동의 스포츠, 우리의 감성을 흔들다

감성이란 아름다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흔히들 감성이라 하면 주로 예술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냉정한 스포츠 세계에서든 뜨거운 감성이 묻어났다. 각본 없는 드라마의 진수를 보여주는 짜릿한 승부, 선수들의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는 감동으로 다가와 우리의 감성을 적신다.



만년 2등의 위대한 멈춤

정정당당하고 착한 것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요즘 세상에 진정한 스포츠맨십으로 알려버린 감성에 단비를 내려준 선수가 있다. 바로 독일의 사이클 선수 '안 울리히'이다. 2003년 7월에 개최된 '투르 드 프랑스'는 울리히에게 '만년 2등'이라는 수식어를 달아준 '랜스 암스트롱'이 5연패에 도전하던 대회였다. 경주의 선두는 역시나 이번 없이 암스트롱. 그 뒤를 스페인의 마야오가 바짝 뒤쫓고 있었고, 울리히가 3위로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승리의 여신의 변심일까 결승점 9.5km를 앞둔 지점에서 암스트롱의 핸들이 응원하던 한 소년의 가방끈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갑작스런 사고로 미처 피할 여유가 없던 마야오도 암스트롱의 자전거에 걸려 넘어졌다. 간발의 차로 피할 시간적 여유가 있던 울리히 선수. 여기서 격차를 벌리면 우승은 그의 것이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울리히는 페달에서 자기 발을 떼고 자전거를 멈춰 세웠다. 암스트롱이 일어나 자전거를 추스르고 페달을 밟기 시작하자 비로서 울리히도 다시 출발했다. 그리고 결승점에 다다른 이들 울리히는 부도 안 되는 간발의 차로 암스트롱에게 대의 우승을 내줬다. 대화가 끝나고 '당신이 우승할 수도 있었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 우승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실력으로 우승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고로 우승자가 결정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페어플레이라는 것은 자전거 경주에 있어서 자전거 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지요."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에 2등의 위대한 멈춤은 지나친 경쟁심에 사로잡혀 남을 끌어 내리기 위해 날이 서 있는 우리 사회에 인간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



인종차별을 넘어선 영광의 등번호 42번

사람들은 저마다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지만 그것이 세상의 차별에 의한 것이라면 좌절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일까.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길을 걸어간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 재키 로빈슨의 이야기는 감동으로 다가온다. 1947년 4월 15일, 당시 '백인들만의 리그'로 여겨지던 메이저리그에 로빈슨이 타석에 올라섰다. 지켜보던 관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감히 흑인 주제에 메이저리그에 올라와?'라며 쓰레기를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관중들의 아우성만 아니라 상대 팀, 심지어 같은 팀 선수들의 열시 가득한 눈총을 받아야 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동료들과 같은 숙소를 쓸 수 없었고, 숙소에서 10km나 떨어진 흑인 빈민가에서 생활해야 했다. 하지만 시련 없는 영웅의 탄생은 없다고 인종차별이 심해질수록 그는 빛이 났다. 데뷔 시즌인 1947년 내셔널리그 신인왕을 수상하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된다. 또한 1949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타격 1위, 도루 1위를 기록했고, 타점과 안타는 2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1947년~1956년까지 다저스에서 뛰는 동안 6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1997년 4월 15일, MLB 사무국은 로빈슨의 데뷔 50주년을 맞이하여 그의 등번호 42번을 메이저리그 최초로 전 구단 영구결번으로 지정했다. (예외 뉴욕 양키스의 마리아노 리베라 선수는 현재 사용 중) 모진 차별 속에서도 최초의 흑인 올스타, 최초의 흑인 MVP, 최초의 흑인 명예의 전당 헌액자에 오르는 등 그의 감동 휴먼 드라마는 지금도 전 세계 야구팬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성을 울린다.

이스탄불의 기적

명승부에서 나오는 감동이야말로 스포츠 본연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아닐까. 2005년 5월 26일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리버풀과 AC밀란의 경기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감동을 선사하며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날 두 팀은 유럽의 최강자를 정하는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맞붙었다. 시작부터 강하게 밀어 부치는 밀란의 공격으로 리버풀은 전반 1분만에 선제골을 내줬다. 이 기세를 몰아 밀란은 전반 39분과 44분에 연속으로 골을 넣으며 일찌감치 우승에 근접하게 됐다.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전반전을 마친 리버풀의 락카들은 침묵만이 존재했다. 그 침묵을 깬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감독 베니테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개를 떨구지 마라. 하프 타임이 끝나고 파지로 올라가는 모든 선수들은 고개를 높이 들어야 한다. 우리는 리버풀이고, 너희들은 리버풀을 위해 뛰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고개를 떨구었다면, 너희들은 스스로를 리버풀 선수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스스로 영웅이 될 기회를 잡아라." 베니테즈의 말이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이어진 후반전에서 기적의 서곡이 경기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후반 8분 만에 리버풀의 제라드가 헤딩골을 넣으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고, 스미체르의 중거리 슛과 알론소의 패널티킥 연속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경기는 연장전까지 이어졌으나 양 팀 추가 득점이 없어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밀란의 피들로와 세브첸고의 킥이 리버풀의 골키퍼 투르크의 선방에 막히면서 빅 이어는 리버풀 손으로 들어갔다. 이날 리버풀이 보여 준 경기는 '이스탄불의 기적'이라 불리며 수많은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줬으며 지금도 사람들은 UEFA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결승전으로 꼽는다. Ⓜ





색과 디자인 그리고 감성으로 범죄를 녹이다!

『아름다운 범죄예방 셉테드(CPTED)』

색과 디자인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는 색 그리고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디자인 그 역할에 감성까지 더하여 이번에는 범죄를 예방한다고 한다. 어둡고 칙칙해 밤만 되면 돌아다니기 두려운 골목길, 무작정 보안 시스템만 늘린다고 안전과 범죄가 예방되는 것이 아니다. 칙칙한 분위기의 골목길에 색과 디자인을 입혀 한층 밝아진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감성이 변화할 것이고, 이와 함께 범죄 발생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범죄예방과 감성디자인이 만났다. 바로 아름다운 범죄예방 셉테드(CPTED)가 그 주인공이다.

색과 디자인, 골목길에 감성을 불어넣다

골목길은 도시의 각박한 삶 속에서도 사람냄새 풍기던 정겨운 공간이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 시절에 대문을 활짝 열어 두어도, 감시 카메라가 따로 없어도 서로가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개발의 열풍 속에 설 틈 없이 돌아가는 도시의 일상은 주위를 돌아볼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이웃'의 의미를 잃어갔고, 이웃 간 소통의 창구였던 골목 그리고 골목길에도 자연스럽게 인적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범죄의 사각지대로 삭막함이라는 뼈대만 남은 골목길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서울에서는 치안 문제가 많았던 마포구 염리동에 시범적으로 셉테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염리동이 과거 마포나루를 거점으로 소금창고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착안해 '소금을 테마로 한 다양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인적이 드물어 무섭기만 했던 염리동 골목길은 '소금길'이라는 예쁜 이름을 얻었고, 마을 입구에 '소금나루'라는 공간을 만들어 문화공간과 24시간 초소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이전

삭막했던 골목길은 색과 디자인으로 채워진 담벼락과 계단 전봇대를 통해 따뜻하고 아름다운 느낌의 운동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했다. 1.7km 길이에 A와 B 2개 코스로 이뤄진 소금길은 도보로 총 40분이 소요되며 전문트레이너가 직접 골목길을 걸으며 맞춤형으로 개발되었다. 1~69번까지의 번호가 매겨져 있는 소금길 전봇대에는 코스 안내지도, 방범용 LED 번호표시, 안전대처요령 사인, 안전벨 등을 설치해 치안과 동시에 안전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소금길 곳곳에 노란색 대문을 한 '소금자킴이집'은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비상벨이 마련되어 있다.

소금길이나 셉테드 모두 물리적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웃 간 소통과 감성공유의 기회를 늘려 서로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민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 범죄 예방의 중요한 요인인 자연적 감시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아름다운 범죄예방 프로젝트 셉테드가 가진 지향점인 것이다. 5

소금길 전체 지도



색과 디자인, 범죄예방을 이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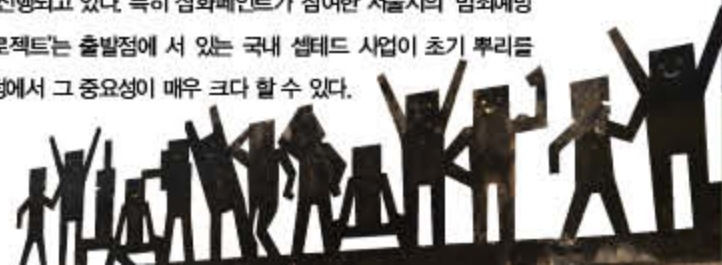
색과 디자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켜주는 원동력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색상과 디자인을 이야기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구입할 물건을 선택한다. 이런 색과 디자인의 긍정적인 효과가 범죄예방에 적용되면 어떨까?

공공장소에 색과 디자인이 있는 감성디자인을 적용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범죄나 안전문제에 취약한 두 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를 실제 적용한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역할을 했으며, 특히 삼화페인트는 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1천 5백만원 상당의 페인트를 기부해 '서울 국제 범죄예방 세미나'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란 무엇일까? 셉테드는 범죄의 심리를 역이용한 도시 환경 설계 기법으로 환경적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한다(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이다. 국내에서는 낮

선 단어 중 하나에 속하지만 외국에서는 10년 이상 연구되었으며, 실제로 사회의 많은 곳에 적용되어 범죄 및 시민들의 불안감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지난 10년간 셉테드 전략을 추진해 온 영국과 미국 Florida 주의 경우 범죄 발생 횟수가 꾸준히 감소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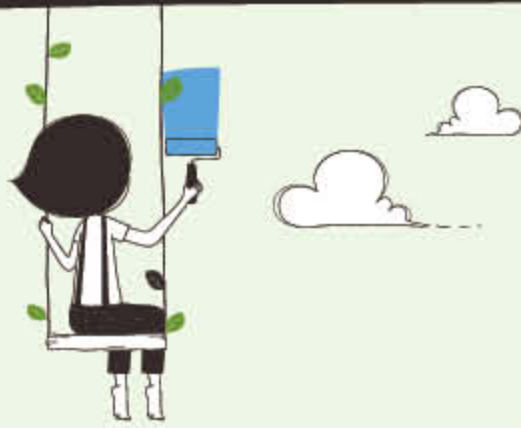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내 41개 지역의 조명을 개선하자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행자의 도로 사용률도 급격히 증가했다. 영국의 경우도, 중앙정부 주도로 1989년 방범인증제인 SBD(Security By Design)를 시행, SBD 기준에 의해 건축된 건축물이나 상가들이 그렇지 않은 일반 건축물이나 상가에 비해 범죄 발생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셉테드는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그 중요성을 감지하고 셉테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삼화페인트가 참여한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는 출발점에 서 있는 국내 셉테드 사업이 초기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01. 상화를 만드는 사람들

삼화페인트 광주광역시 두하도장상사 백대선 대표 | 취재 이승호

'욕심 과하게 부리지 말고, 무슨 일이 됐든 언제나 사람이 우선이다'를 신조로 삼으며 4년째 삼화페인트의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멀리서 온 손님이라며 무엇 하나 더 챙겨 주시려 던 후한 인심. 이번 호에서는 전라도 인심이 가득 묻어나는 광주 두하도장상사의 백대선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 삼화페인트 광주지역 대리점을 대표로 해서 두하도장상사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대리점 소개 부탁드립니다. 페인트업은 20년 전 지인의 소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분과 당시 광주 영업담당자 덕분에 지금의 두하도장상사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광주지역에 삼화페인트 대리점만 40곳 정도 있는데 이 중 저희가 3대 대리점에 끝납니다. 그만큼 내실이 탄탄한 대리점이라고 소개하고 싶네요.



Q. 두하도장상사의 강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작업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아닐까요, 특히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관리 하나는 자신 있어요. 저는 페인트 대리점 밑바닥 일부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점? 우리가 다른 곳보다 마진을 덜 남겨요. 비록 이유는 많이 못 남겨도 대신 단골들이 많이 있죠. 이게 저희의 강점입니다.

Q. 지역마다 페인트 브랜드 선호도가 다른 것 같은데요, 광주지역에서 삼화페인트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처음 페인트업을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광주 지역에서 삼화페인트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 영업 담당자가 열심히 했고 제품 품질에 대한 입소문도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광주 지역에서도 삼화페인트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Q. 제품에 대한 입소문이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삼화페인트 제품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직접 페인트 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삼화 제품은 페인트칠이 매끄럽게 된다고. 한 번을 칠하더라도 깨끗하게 발리니까 일하기 굉장히 편하다고들 합니다. 이런 써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Q.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페인트를 안 쓰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페인트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페인트는 문자 그대로 '미(美)'라고 생각해요. 발가벗은 시멘트에 옷을 입혀주잖아요. 페인트가 주는 색과 모양에 따라 건물의 느낌도 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페인트는 시멘트의 보약이라고 해요.

Q. 삼화페인트가 올해 67주년을 맞이했어요. 그 동안 함께 해 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립 67주년. 지금 이만큼 오기까지 매 순간 쏟은 노력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쏟았던 열정처럼 항상 변치 말고,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 하길 바랍니다. 🍀



#02.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삼화페인트 제관팀 | 글_사업관리팀 신용기

삼화페인트 캔 도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입도료의 증가로 경쟁이 심해지고, 그만큼 이들의 머리와 발은 설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친 기색 없이 항상 '파이팅'이 넘칩니다. 이번 호에서는 가슴 속 뜨거운 태양을 안은 네 남자가 모인 제관팀을 소개합니다.



Q. 삼화엔지니어링 독자분들께 제관팀에 대해 간단한 소개 먼저 해주세요.
조병렬 차장 | 저희 제관팀은 라인성으로 포장용기인 캔에 사용되는 도료를 판매하는 전형적인 B2B 영업입니다. 최근 VALSPAR, PPG, AKZO 등 수입도료의 증가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저희는 취약 아이템 개척 및 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비한 신제품 개발을 통한 M/S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Q. 사내에서 제관팀 훈남 4인방이라고 하던데요, 각자 자기소개와 팀에 대한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병렬 차장 | 타 팀에서 부러워하는 즐기며 일하는 팀. 그러나 목표는 초과 달성하는 팀. 아마 추어가 아닌 프로로서 팀원 모두 셀프리더인 팀입니다. 팀원 모두가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더욱 합심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욱 차장 | 삼화페인트 회사 내에서 인사성 밝기로 소문난 사나이! 제관팀 내에서는 든든한 기둥으로, 거래처에서는 예스맨으로 통하는 김영욱 차장입니다. 2013년도 어느덧 반이 지났습니다. 새해에 결심하셨던 일들은 잘 실천하고 있으신지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에도 제관팀은 회사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관팀 파이팅!

최재혁 대리 |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영업하자!" 2012년 마포사회인 야구리그 다승왕 출신(웃음) 최재혁 대리입니다. 자원이 없으면 자력에 의지하고, 기습을 당하면 기습으로 돌파하는 강한 멘탈의 삼화인이 되겠습니다!! 강한 제관! 강한 삼화페인트 파이팅!

김영준 사원 | 고객에게 제품보다는 사람을 판매하고, 고객 만족이 아닌 고객 감동의 순간까지! 제관팀의 새로운 바람 김영준 사원입니다. 선배님의 노하우를 열심히 전수받고, 새로운 시장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제관팀 화이팅!

Q. 정말 파이팅이 넘치는 부서인 것 같네요. 소식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조병렬 차장 | 팀원들에게 하고 싶네요. 정신 없이 일하다 보면 한 팀이라 해도 서로 소홀해질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다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어 즐겁고 마음도 든든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합시다! 🍀



The Color
컬러트렌드_글 이미지[컬러개발팀 연구원]



'컬러는 감성이더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컬러는 감성을 담고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컬러는 빛에 의해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광선 영역의 모든 색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컬러를 단순히 눈을 통한 감각의 한부분으로만 읽어내지 않는다. 우리 눈을 통해 보여지는 컬러는 같은 빨강이라도 보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열정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빨강을 위험의 요소로도, 잘 익은 딸기와 같은 과일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감성을 담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컬러인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컬러 트렌드는 현상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나간 시대와 다가올 미래의 컬러 트렌드에서 같은 브라운 컬러가 소개되더라도 그 컬러가 담고 있는 의미는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그때문이다. 컬러 디자인센터에서는 이런 다양한 감성이 담긴 컬러들 중 '감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로의 한 종류이기도 하며, 패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보다 다양한 감성을 담아내는 네일(Nails) 컬러를 통해 2013 S/S 컬러 트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3 S/S NAILS COLOUR TRENDS

CANDY CAROUSE

가장 로맨틱하고 여성스러운 컬러로 소녀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유스풀(Youthful)한 무드가 네일 컬러 트렌드에 나타나며 부드러운 파스텔 컬러가 레인보우 브라이트(bright)한 느낌을 선사한다.



PATTERN 플라워 패턴과 디자인이 주를 이루며, 장식들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컵케이크와 스프링클과 같은 캔디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경쾌함을 주고, 각각의 손가락에 다양한 컬러와 많은 패턴으로 멀티한 네일 트렌드를 구성한다.

COLOR Yellow, Purple, Mint, Blue 파스텔의 빛바랜 라일락 컬러가 네일 컬러에 새로움을 나타낸다.



출처 : TRENDPOST

TROPICANA RAINBOW

텐저린(tangerine)의 따뜻한 색상의 색조, 깊고 진한 무지개 빛과 공작새 등 자연에서 얻은 생동감 넘치는 컬러로 경쾌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한다. 노스탤지(nostalgic)한 감성은 헤어와 메이크업에서도 함께 사용된다.



PATTERN 수박, 키위, 바나나 같은 과일 모양의 패턴과 빈티지한 컬러감으로 이루어진 플로럴 패턴이 보다 더 화려하고 섬세한 자연을 한층 더 강하게 어필한다.

COLOR 무지개 빛의 다양한 컬러가 강한 자연의 빛으로 발산한다



EMBELLISHED

매달려한 컬러들이 주를 이루는 테마로 이집트에서 영감을 받았다. 흥미로운 장식과 패턴이 가득하고 터퀴아즈(turquoise), 옐로우와 다양한 메달릭 컬러가 주를 이룬다. 방향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이는 원석의 레인보우 빛이 특징적인 컬러 방향으로 제안된다.



PATTERN 끈이 뾰족한 형태의 네일 장식들과 고대 상형문자가 패턴으로 나타난다.

COLOR 브론즈(bronze)와 메달릭 골드가 주요 컬러로 구성된다. 원석의 터퀴아즈(turquoise)가 인상적이다. 진주의 레인보우 빛도 함께 눈여겨 볼 수 있다.



페인트, 보다 능숙하게 칠 하기!

자금은 DIY(do it yourself) 시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스스로 만들고 꾸미는 DIY가 각광 받으며 가정이나 직장에서 페인트칠을 직접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페인트칠이란 아직까지 낯설고 어려운 작업임은 틀림없다. 소비자의 페인트 궁금증을 풀어주는 '페인트레시퍼' 그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일반인도 쉽게 페인트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스크 테이프를 이용해보세요!

보통 페인트를 칠해서 쓰기 때문에 페인트통의 입구 주변에 페인트가 묻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쓰려고 뚜껑을 닫으려 하면 잘 닫히지도 않고 나중에 입구 주변이 굳어서 뚜껑이 잘 열리지 않게 된다. 이럴 때는 사진처럼 페인트통 주변에 마스크 테이프를 발라두었다가 나중에 떼어내면 깨끗이 사용할 수 있다.



신문지를 이용해 보세요!

붓이나 롤러를 보관할 때는 물이나 신나에 잘 세척한 후 충분히 건조를 시킨다. 그리고 신문지로 싸고 고무 줄로 묶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물세척: 수성도로 사용시 / 신나세척: 유성도로 사용시)



철사를 이용해 보세요!

붓으로 칠할 때 보통 페인트통 가장자리에 붓을 가다듬어 칠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통 주변에 페인트가 묻어 뚜껑을 닫기가 힘들어진다. 페인트통 가운데에 철사를 매어두고 칠사에 붓을 가다듬어주면 통에 묻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스폰지를 이용해 보세요!

칠재 난간이나 창살처럼 칠하기 곤란한 곳은 사진처럼 고무장갑에 스폰지를 붙여 스폰지에 페인트를 묻힌 후 난간이나 창살을 쥐고 가볍게 문질러 주면 간단하게 칠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페인트에 신나를 적게 타서 너무 뽀얗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항점이나 신문지를 이용하세요!

붓을 거꾸로 들고 칠해야 할 경우 페인트가 흘러내려 손에 묻을 수 있다. 이때 붓의 들레에 천을 감거나 두꺼운 종이로 고깔을 만들어 씌워주면 손에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못 쓰는 목재를 이용하세요!

사포질을 할 때 맨손으로 사포질을 하면 열이 발생해 손을 데일 수 있다. 사진처럼 사포를 목재조각에 붙여 사용하면 좋다. 사포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다.



삼화페인트가 전하는 또 한번의 놀라움! 3시간용 “무용제형 에폭시 내화도료” 개발



올해 창립 67주년을 맞이하는 삼화페인트공업㈜는 국내 건축용 도료시장을 견인하였으며, 이 모든 것은 우수한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진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특히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고기능성 도료인 내화도료 부문에서는 그 기술력이 독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화페인트공업㈜는 국내 최초로 무용제형 에폭시 타입의 철골 “보용” 3시간용 에폭시 내화도료(제품명: 플레임체크 EXP-100(보용))를 개발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으로부터 3월 18일자로 인정서를 획득하였다.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시 약 1,200℃ 내외의 고열이 동반되어 철 구조물이 휘거나 녹아 내림으로써 건축물이 붕괴되는데, 내화도료는 국토해양부 기준에 따라 실시된 품질시험의 결과로부터 내화성능을 확인하여 인정된 구조재이며, 건축물의 뼈대가 되는 철골 구조물에 도장하여 화재 발생시 초래되는 건물 붕괴를 지연시킴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고기능성 특수도료이다.

국내 건축법 상 모든 철 구조물에는 내화도료를 적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12층/50m 이상 규모의 건축물(일반, 주거, 산업시설)에는 3시간용 내화구조를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도료 타입의 내화구조 적용은 국내에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최근 고층 건축물의 증가 추세에 따라 3시간용 에폭시 내화도료에 대한 필요성과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삼화페인트공업㈜에서 개발한 철골 “보용” 3시간용 에폭시 내화도료는 국내 업계 최초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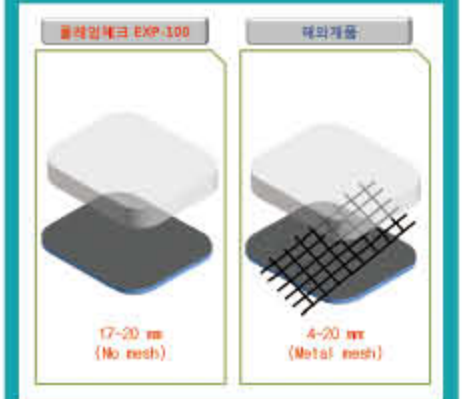
〈그림1. 내화도료 코팅시스템〉

현재, 삼화페인트는 추가적으로 3시간용 철골 ‘플레임체크 EXP-100(기동용)’에 대한 인정시험을 진행하였으며, 6월 초 KICT로부터 인정서를 발급받을 예정이다.

삼화페인트의 마케팅 담당자는 내화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하며, 건축업계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삼화페인트에 제품 문의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 2013년 상반기부터 큰 폭의 시장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S

과연, 삼화페인트의 무용제 에폭시 내화 페인트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 01 국내 최초 3시간용 내화도료라는 것이 그 이유이며, 초고층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고 기능성 특수도료라는 점이다.
- 02 기존 유기질 유성 내화도료와 달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함유하지 않은 Zero VOC의 친환경 무용제형 에폭시 도료로서 수분과 외부 노출환경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한 내구성과 부착력을 통해 장기간의 내구연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2. No mesh 공법 비교〉

- 03 해외 유사제품의 경우 내화도료 현장 시공시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막 내부에 매쉬 보강(Mesh Reinforcement)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하지만, 삼화페인트공업㈜의 ‘플레임체크 EXP-100(보용)’은 별도의 매쉬 보강작업이 필요 없는 No Mesh 공법으로 시공되는 내화도료로서 내화성능뿐만 아니라 시공성까지 확보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거울칠 외출 시 내복을 입는 불편함을 제거한다. 단일복으로 보온효과 및 활동성을 높이는 효과와 같다.





삼화페인트 대전영업소 직원들과 함께하는 제13회 대청호마라톤대회를 돌아보다.

2013년 5월 26일(일) 대전 신탄진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내 대청댐 진디 광장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한 "제13회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삼화페인트 대전영업소 직원들과 대전영업소 관할 대리점 사장님 및 가족이 함께 참가하여 건강과 화합을 다져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의 참가 의의는 대전영업소직원들과 대리점 사장님들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단합된 삼화페인트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 아래 진행되었다. 이번 마라톤대회에 삼화페인트 대전영업소직원 전원과 삼화페인트 대리점 사장님 및 가족 총 89명(건강코스5km-78명, 미니코스10km-11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이번 마라톤대회 행사의 생생한 현장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자. 📸

삼화페인트 대전영업소 정지욱 대리과 봉어행 아들^^



삼화페인트와 함께한 마라톤 대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멋들어지게 사진 한 컷



언제나 화이팅이 넘치는 대전영업소 직원들



마라톤 완주를 위한 삼화 가족들의 힘찬 발걸음



와~ 선물이다 즐서자! 즐!!



이제 삼화페인트와 함께하는 마라톤이 시작된다



아~나도 뛰고 싶다



페인트업계의 양대산맥

'건축용 1위 삼화페인트 vs 차량용 페인트 KCC'

3조원대 국내 페인트(도료) 시장을 놓고 KCC와 삼화페인트 두 라이벌 간 자존심 싸움이 한창이다. 돌집만 보면 1위 KCC가 1조 7700억원, 2위 삼화페인트가 4113억원으로 4배 넘게 차이가 난다. 그러나 분야별 경쟁력은 다르다. 7000억원 규모의 국내 건축용 도료 시장에서 삼화페인트가 35%(2500억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선박 VS 공업용 도료

1958년 설립된 KCC는 국내 페인트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다. 현대자동차에 쓰이는 차량용 페인트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페인트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한다. 선박용 도료 역시 선박 빌라스트탱크(부양용을 조절 탱크) 방청도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KCC는 올해도 강점을 지닌 자동차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KCC 관계자는 "세계 최고 자동차 도료기술을 가진 듀폰과 기술 제휴를 맺은 이후 품질 경쟁력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며 "올해 자동차 부품용, 전기전자소재용 페인트 시장까지 공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삼화페인트는 KCC보다 12년 앞선 1946년 페인트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1976년 국내 최초로 내화도료(불에 타지 않는 도료)를 개발, 들

풍을 일으키며 급성장했다. 주력 제품인 건축용, 공업용 도료와 특수도료인 PCM도료가 전체 매출의 86%를 차지한다. 이 회사는 국내 건축용 도료에선 업계 1위지만 2009년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로 시장이 급격히 줄자 공업용 도료 개발에 집중했다.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쓰이는 컬러강판 도료인 PCM용 UV도료를 포스코와 5년간 개발한 끝에 2009년 상용화했다. 지난해 이 분야 매출은 2011년(430억원)보다 14% 상승한 490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효자 사업으로 커가고 있다.

●신사업 투자보다 사업 확대

KCC는 업계 1위라는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신사업에 도전했지만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고전했다. 신사업이 암초를 만나자 기존 페인트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돌아왔다. KCC는 지난해 6000억원을 들여 울산에 연산 5만7000t 규모의 자동차용 도료·합성수지 신공장을 준공했다. 2016년 증설이 마무리되면 KCC의 도료생산 능력은 연산 30만에서 44만으로 늘어난다.

삼화페인트 역시 사업다각화를 위해 2008년 인조잔디 사업에 진출했지만 역량 집중을 위해 3년 만에 사실상 이 사업을 중단했다. 대신 충남 공주시에 분체, 시너 등 도료용 신공장을 짓고 있다. 약 300억원이 투자되는 신공장이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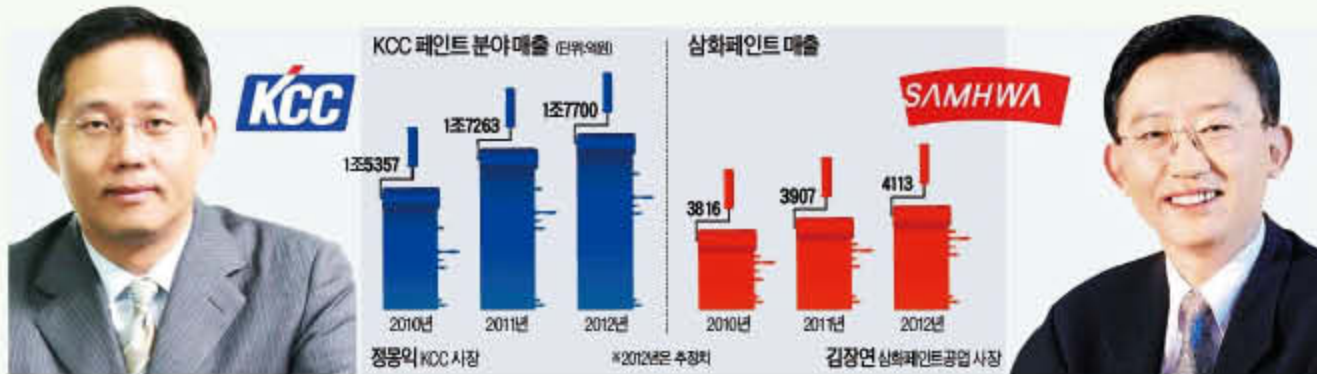
년 중 완공되면 생산능력이 16%가량 늘어나게 된다.

●해외시장을 뚫어라

KCC는 페인트 매출의 27%를 수출로 올리고 있다. 1992년 자회사 KCS를 통해 싱가포르에 처음 진출한 KCC는 중국과 터키에 현지 생산 법인을 두고 있다. KCC 관계자는 "국내의 영입부서 간 시장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 구축, 온라인 의사소통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해외 영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시장 거점으로 일찌감치 중국을 선택해 지난해 플라스틱 도료로 105억원의 매출을 올린 삼화페인트는 최근 스마트폰 도료 생산 증가에 따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해외 휴대폰 생산 거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2010년 베트남에 세운 휴대폰용 도료 제조 생산 법인인 삼화페인트 비나컴퍼니가 대표적인 예다. 해외 거점 진출로 삼화의 휴대폰용 도료 매출은 2011년 120억원에서 100% 증가한 240억원으로 경종 뛰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베트남은 제조업과 건설업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신흥시장"이라며 "베트남과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모바일 제품용 도료 시장 확대를 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News

THE CLASSY 리뉴얼 및 라인업 제품 출시



국내 최초 3시간용 '무용제형 에폭시 내화도료' 개발



Focus

국내 건축용 도로 1위 업체인 삼화페인트는 높아지는 소비자의 눈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 품격 프리미엄 페인트인 THE CLASSY의 라인업 및 리뉴얼 제품을 출시한다.

현재 시판중인 'THE CLASSY'를 리뉴얼하여 'THE CLASSY ATO FREE'를 출시하며, 기존 내부용 뿐만 아니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새롭게 라인업 제품을 구성한다. 최근 DIY 시장 확대와 친환경 페인트의 관심 및 수요 증가로 다양한 프리미엄급 페인트가 출시되고 있으며, 그중 삼화페인트의 THE CLASSY ATO FREE 제품군은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및 미국천식알레르기협회의 아토피 알레르기 인증을 도로 업계 최초로 동시 취득하여, 유해 물질로 인한 새집증후군,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촉진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다.

라인업 제품군은 일반 건축 내부에 적용 가능한 내부용 'THE CLASSY ATO FREE INTERIOR', 표면 처리된 다양한 철재 및 목재에 적용 가능한 다목적용 'THE CLASSY ATO FREE MULTI', 실내벽지 및 아이들 방의 리폼용으로 사용 가능한 벽지용 'THE CLASSY ATO FREE WALL PAPER', 화려하고 미려한 색상 연출이 가능한 고채도 인테리어용 'THE CLASSY ATO FREE HIGH CHROMA'로 4개의 제품군으로 출시된다.

DIY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수입제품과 비교 시 보다 우수한 물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삼화페인트의 THE CLASSY ATO FREE 제품군이 수입제품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기자 김필영 [연구기획팀 선임연구원]

삼화페인트공업(대표 구자현)은 국내 최초로 무용제형 에폭시 타입의 철골 '보용' 3시간용 에폭시 내화도료를 개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국내 건축법상 모든 철 구조물에는 내화구조를 적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12층 또는 50m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는 3시간용 내화구조를 적용토록 돼있으나 현재까지 도로 타입의 내화구조 적용은 국내에 적용된 사례가 없다. 이런 시점에 철골 보용 3시간용 에폭시 내화도료의 개발 가치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인증 획득한 제품은 기존 유기질 유성 내화도료와 달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함유하지 않은 Zero VOC의 친환경 무용제형 에폭시 도료로서 수분과 외부 노출환경에도 사용할 수 있다. 우수한 내구성과 부착력을 통해 장기간의 내구연한을 발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금번에 인증 획득한 3시간용 에폭시 내화도료인 '플레임체크 EXP-100(보용)'과 함께 이미 관련 시장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1시간 및 2시간용 유기질 유성 내화도료인 '플레임체크 SS 시리즈'를 통해서 내화도료시장에서 선두 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며, 현재 추가적으로 3시간용 철골 '기둥용'에 대한 인증획득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취재기자 안수용 [개무팀 대리]

한눈에 알아보는 자동조색기 주문배합 데이터 활용법

삼화페인트 자동조색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코너 '자동조색기 완전정복' 두 번째로, 삼화페인트 자동조색기의 주문 배합 데이터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01. 자동조색기 실행하기



1. 바탕화면에서 COROB SHOP을 실행한다.



2. 디스펜서 초기화를 실행(PC ↔ 조색기) 하여 연결상태를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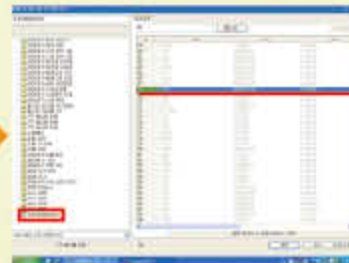


3. 노즐 피지를 실행하여칼라렌트 도출입구 점검막힘 현상 및 오작동을 점검한다.

02. 주문데이터 선택하기



1. 기본 목록에 들어가 *찾기*를 실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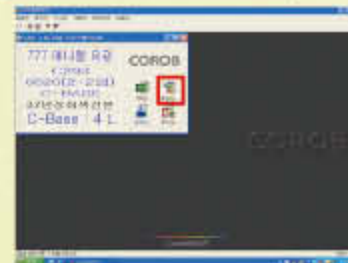


2. 주문 배합 데이터를 실행하여 *색상*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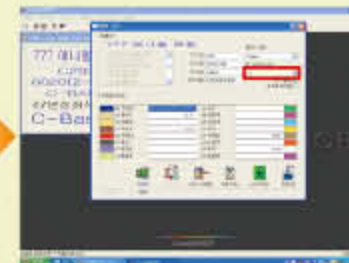
배합량 계산법

예) RT 21.7 X 0.99	=	21.49
예) VT 0.75 X 0.99	=	0.74
예) ST 14.95 X 0.99	=	14.80
예) XT 11.49 X 0.99	=	11.38

03. 배합비 수정하기



1. 기본 목록에 들어가 *편집*을 실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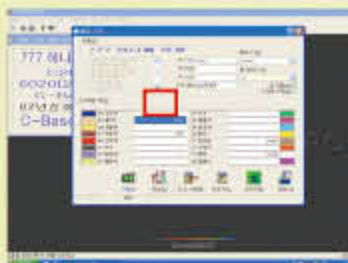


2. 배합수정에서 칸 사이즈를 '1'로 설정한다.



3. *조색제와 양* 설정에서 *투입량 X 0.99* 로 배합량을 계산하여 입력한다.

04. 배합비 저장하기



1. 배합수정에서 *저장*을 선택한다.



2. 배합저장에서 *변경완료 입력 후* 저장하면 완료된다.

※ 변경완료 입력 이유
- 완료된 색상배합을 중복 변환하는 오류 방지



QUIZ

<삼화엔피플>에서 독자 여러분께 문화를 선물해 드립니다

삼화엔피플 독자와 함께하는 독자 참여 페이지 '문화를 드립니다.' 입니다.

아래 퀴즈를 풀어 삼화엔피플 이메일로 정답과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문화상품권 2만원권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참가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정답과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세요!

E-mail : speople@spi.co.kr

Samhwa&Quiz

이번 삼화&퀴즈는 지난호 뉴스포커스에서 소개 드린 '화학물질 분류, 표시 국제기준(GHS) 도입' 기사와 관련한 퀴즈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 삼화엔피플 지난 호를 참조해주세요.

아래그림은 'GHS 경고표시 그림문자'입니다. 그림문자 중 그림과 설명이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 드립니다! <삼화엔피플> 퀴즈 코너 '문화를 드립니다'에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장인 박정식 상무님과 레인보우기자단의 공정한 추첨을 통해 총 3분의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이번 호 당첨자 경남 창원시 임준호님 / 경기 안산시 김홍섭님 / 오수희님

※ *당첨되신 분들 중 메일 회신을 안 해주신 분께서는 speople@spi.co.kr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opinion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삼화엔피플 독자 여러분에게 보다 재미있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관심 어린 의견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꼭 필요로 하는 기사와 개선됐으면 하는 점을 이메일(speople@spi.co.kr)로 보내주세요. 독자의 의견을 귀담아 더 나은 삼화엔피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의견

reishing13@naver.com
삼화엔피플로 소비자와 친밀하게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도 삼화엔피플을 더 알 수 있는 다양한 유익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hjun@hanmail.net
안녕하세요 삼화엔피플을 즐겨보는 독자입니다. 처음엔 그냥그냥 가쁘게 보았는데 가끔들수록 알차지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조금 양이 늘었으면 좋겠고, 흥미위주의 재미있는 기사도 좀 더 있었으면 합니다.

youjny@nate.com
삼화엔피플 기자단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나날이 내용의 깊이가 높아지는 삼화엔피플이 되는 것 같네요. 다음 호도 기대할게요. 삼화엔피플 파이팅

ri0523@naver.com
구성이나 내용이 너무 유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만 드시는 분들의 수고가 느껴집니다.앞으로도 유익한 내용 많이 담아주세요. 삼화엔피플파이팅!



Premium Paints  **ATO FREE***

Premium Paints with Teflon® surface protector

[아토프리 페인트를 만나다! 프리미엄 페인트, 더 클래식]



**아토피알러지 케어
인증획득!**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미국천식알레르기협회

**듀폰의 Teflon®
하이테크
아토피알러지 케어 인증
바이오테크**

**우수한
항균성과
뛰어난 지속성**

**인증받은
깨끗한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 INTERIOR** 습기가 많은 내부에도 탁월한 항균력을 가진 하이테크 내부용 도료
- MULTI** 방문, 가구등의 리폼에 적합한 다목적 리폼용 도료
- WALL PAPER** 다양한 색상, 은은한 에그셸 광택의 프리미엄 벽지용 도료
- HIGH CRUISE** 채도높은 강렬한 색상의 인테리어용 도료

아토프리(ATO FREE)? 아토피알러지 케어 인증을 획득한 삼화페인트의 새로운 바이오테크놀로지 브랜드

*Teflon®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and is used under license by Samhwa Paint Industrial Company, Ltd.

*This product is certified as Atopic Free and for Atopic Allergy Care according only to the KAF Certification.